

중요! SUNDAY

가족, 사랑스럽고도 때로 힘이 드는 그 이름

기묘가족: 가장의 부재
6월 1일~8월 6일 바라캇 서울
문의 02-730-1949

[중앙선데이] 입력 2017.06.04



조문기의 '공격과 방어'(2013), oil on canvas, 162.2×130.3 cm



알렉스 베르헤스트의 '정지된 시간'

런던, LA, 아부다비에 이어 지난해 서울에 지점을 낸 150년 전통의 바라캇(BARAKAT) 갤러리가 두 번째 기획전 주제로 가족을 내세웠다. 한국의 회화작가 조문기(40)와 벨기에의 미디어 아티스트 알렉스 베르헤스트(32)의 2인전이다. 이들은 태어난 나라도, 문화도, 예술적 방법도 다르지만, 성화(聖畵)의 상징을 차용하거나 영화·만화·애니메이션에서 받은 영감을 활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인간 갈등의 근원으로서의 가족을 조명한다. 조문기는 가족 구성원간 느껴지는 모호한 애증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베르헤스트는 가장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 이후 사람들의 내면을 물끄러미 응시한다. 무료. 월요일·공휴일 휴관.

글 정형모 기자, 사진 바라캇 서울